

예루살렘을 보고 우심
아세르 인트레이터

예루살렘의 파괴를 애도하는 날 곧 아브 월 9 일에 이 글을 씁니다 (렘 39:2 - ...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11, 18; 3:48 에서 예레미야가 그랬고,
누가복음 19:41-42 에서 예수아께서 그러셨습니다. -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아의 감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이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5 장 전체가 예레미야의 감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수아의 감정을 확장하여 예언적으로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41 은 예레미야 애가의 애도와 애통을 한 구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아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으며, 군중들도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마 16:14). 한 가지 이유는 둘 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수 (주전 586 년) 전에, 예수아께서는 대 유수 (주후 70 년) 전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아 왕국의 수도이며 그분의 지상 통치의 왕좌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실 때 예수아께서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아께 예루살렘의 파괴는 당신의 수도가 파괴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마 22:7 - ...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 23:39; 눅 13:35 -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 24:2; 막 13:2, 눅 19:44 - ...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눅 19:43-44 -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

눅 20:16 -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

눅 21:20 -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눅 21:24 -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노아의 홍수에 필적하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파괴와 예슈아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에는 심오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재건이라는 두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U 의 보이콧

EU 는 금주에 1967 년 “녹색 선(green line)” 너머의 이스라엘 영토에서 생산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곳의 이스라엘 회사에 고용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시민들이 살해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 중에도 그런 것은 제쳐두고, 집을 짓고 사업체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벌하는 기괴한 부당함에 이스라엘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핍박 받는 군인들

이스라엘 언론은 금주에 핍박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관하여 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총직한 시민으로 군 복무 중인 나사렛 출신 아랍 크리스천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입대를 했다는 이유로 무슬림 이웃들이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아랍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슬람 법 아래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통치 하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하레딴 (극정통 유대교 유대인들)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하레딴이 이스라엘 국가 및 군대에 대해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들은 이웃으로부터의 배척과 폭력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박해가 기묘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성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영적 전쟁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요새들

바울은 우리 마음 속 잘못된 생각들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뿌리깊게 자리잡은 형태의 악한 생각들은 무너뜨려져야만 합니다. "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고후 10:4-5.

악한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선한 생각의 요새는 얼마나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만 해서는 안되고, 순전하고 건강한 생각으로 새로운 성벽을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거짓과 염려, 간음, 미움, 낙심, 원함과 탐욕 같은 것들이 틈탈 여지가 없도록 성경적 사고 방식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 고백, 순종과 진실함, 관용과 충성으로 이처럼 선한 정신적 요새를 세우는 것입니다.

카찌르 청소년 컨퍼런스

심카 무어(Simcha Moore)

이번 주 갈릴리에서 저희의 귀한 친구 에이탄 쉬쉬코프(Eitan Shishkoff)가 인도하고, 100 명이 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석하는 카찌르(Katzir, 추수)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신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에 카찌르는 청소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예배와 춤, 미술과 연극을 통해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은사를 계발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유력한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받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